

# ‘루키’ 강성훈 PGA 드라마 쓸까

두번째 출전 대회 파머스 오픈 첫날 ‘폭풍 샷’ 돌풍 예고  
 이글 1개·버디 6개 8언더파... 톱랭커를 제치고 단독선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신인생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이 또 한 번의 신인 돌풍을 예고했다.

강성훈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토리 파인스 골프장 북코스(파72·687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6개를 쏟아내 8언더파 64타를 찍어냈다.

PGA 투어 데뷔전이었던 소니오픈에서는 첫 탈락하는 아쉬움을 남겼던 강성훈은 7언더파 65타를 친 알렉스 프루, 리키 파울러(이상 미국)를 1타차로 따돌리고 리더보드 맨 윗자리에 단단하게 이름 석자를 올렸다.

티샷 평균 비거리 323야드를 기록한 강성훈은 페어웨이 안착률 64%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4개의 파5홀에서 4타를 줄이는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 북코스 10번홀에서 시작한 강성훈은 12번홀(파3)에서 1타를 줄이고 14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는 등 전반에만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후반 들어 5개 홀 연속 파 행진을 이어가며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강성훈은 6번홀(파3)에서 1타를 줄이며 다시 상승세를 타고 8번홀(파4)과 9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기본 종계 1라운드를 마쳤다.

올해 처음 PGA 투어에 출전한 양용은(39)도 힘을 냈

다. 양용은은 북코스에서 버디 7개에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치며 필 미켈슨(미국) 등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북코스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15위의 성적표를 제출했고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와 김비오(21·네슨)는 공동 54위(1언더파 71타)에 자리했다.

올해 처음 대회에 출전한 우즈는 버디 3개를 골라내며 3언더파 69타를 찍어내 공동 22위로 첫 라운드를 마쳤다. 비록 보기는 없었지만 티샷의 페어웨이 안착률이 36%에 그쳤고 파5 홀에서 단 한개의 버디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다.

북코스보다 어려운 남코스(파72·7569야드)에서 플레이를 펼친 최경주(41·SK텔레콤)는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77위로 처졌다. 남코스에서는 존 맬리(미국)와 미켈슨, 파비안 고메스(아르헨티나)가 5언더파 67타를 쳐 가장 성적이 좋았다. 지난 주 북 호프 클래식에서 공동 5위에 올랐던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북코스에서 1오버파 73타를 치며 공동 97위로 밀려 첫 통과가 우선 과제다. /연합뉴스



# 피겨퀸 김연아 “경기력 OK”

3월 세계선수권 완벽 준비, ‘오마주’로 성원 보답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 프로그램 선보이게 돼 긴장되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한다.”

한국 피겨 역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맛봤던 ‘피겨퀸’ 김연아(21·고려대)가 2011 세계선수권 대회(3월21~27일·도쿄)를 앞두고 “전전히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 왔다.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며 대회 준비 상황을 전했다.

김연아는 28일 언론사 공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훈련을 하면서 체력 훈련은 물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시즌 그라프티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아이스쇼에 나서면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준비가 완벽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28일 언론사 공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훈련을 하면서 체력 훈련은 물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시즌 그라프티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아이스쇼에 나서면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준비가 완벽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28일 언론사 공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훈련을 하면서 체력 훈련은 물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시즌 그라프티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아이스쇼에 나서면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준비가 완벽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결

# 모래관 이태현 독주 누가 막을까

설장사씨름대회 1일 개막

2011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신묘년 새해를 열어젖혔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1일부터 나흘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구제역 여파로 지난해 12월 개막예정이었다.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취소돼 아쉬워 했던 씨름팬들의 갈증을 달래줄 전망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심은 돌아온 모래관의 황태현(구미시청·백두검)의 독주를 누가 막아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종합격투기에서 씨름으로 돌아온 이태현은 지난해 열린 4개 대회 중 설날장사대회, 문경장사대회, 추석장사대회 등 3개 대회를 휩쓸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대회 마지막날인 4일 펼쳐지는 백두장사 결정전에서는 역시 2009년 천

하장사 황규연(현대삼호중공업)이 이태현의 가장 강력한 적수로 꼽힌다.

황규연은 지난해 무릎 부상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장사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황규연은 3일 열리는 예선 첫경기에서 팀 후배이자 강적 윤정수(현대삼호중공업)와 대결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170kg의 거구 윤정수는 지난해 새로 바뀐 살바 잡기 규정에 적응하지 못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3일 열리는 한라급 경기에서는 조준희와 김기태(이상 현대삼호중공업)가 장사 자리를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게 됐고 2일 열리는 금강급 경기에서는 임태령(수원시청)의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 KIA 등 프로구단 전훈 꼬이네

규슈 화산폭발 불똥에 일정변경·훈련장 교체

일본 규슈 화산 폭발로 KIA 타 이거즈 전지훈련단의 여행 경로가 변경됐다.

관에서의 1차 훈련을 끝낸 KIA 투·포수조가 28일 오후 3시 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했다.

선수단은 당초 이날 오전 야수조 캠프가 마련된 미야자키로 곧장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경계에 위치한 신모에다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산재가 미야자키 공항에 영향을 미쳐 후쿠오카 공항으로 경로를 변경했다.

지난 16일부터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 스프링 캠프를 차린 야수조도 화산 폭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캠프를 차린 다른 구단들도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

두 세우고 있다. 미야자키현에는 KIA 외에 두산 베어스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토시의 구제역 문제로 캠프 예정이었던 두산은 화산에 따른 영향이 적어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축구단의 캠프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내달 13일부터 열흘간 가고시마 전지훈련을 준비했던 울산 현대는 일본 대신 제주도를 캠프지로 선택했다. 연습경기 상대가 마땅치 않은 데다 화산 분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훈련장을 바꾸기로 했다.

수원 삼성은 다음달 7일부터 구마모토에서 전지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제주로 훈련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시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구마모토를 찾을 계획이었던 전남 드래곤즈도 현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캠프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캡틴’ 박지성, 대표팀 은퇴하나

31일 기자회견서 밝힐 듯

‘캡틴’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3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은퇴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박지성이 31일 축구회관에서 축구대표팀 은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아시아컵 3-4위전을 앞두고 대표팀 은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한국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이번 아시아컵을 앞두고 아버지인 박성종 씨를 통해 대회 이

후 은퇴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본인 스스로 은퇴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지난 26일에도 “100번째 A매치에서 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대표팀 은퇴 여부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지성은 지난해 6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은퇴 시기를 생각하면 2011년 아시안컵 무대가 될 것 같다. 꼭 우승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지성은 대표팀 동료의 사기를 생각해 은퇴에 대한 언급을 줄이면서 귀국해서 직접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3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확실하게 은퇴하겠다고 말할지는 아직 모른다.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애초 수원의 박지성 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축구협회의 배려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종 씨는 이어 “내달 9일 터키와 평가전에 나설지도 아직 생각중이다. 은퇴를 선언하면 경기를 뛰지 못한다”며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본인이 직접 밝혀야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승준, 팬들이 뽑은 역대 올스타 최고 MVP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이승준이 네 시즌이 뽑은 역대 올스타 최고 MVP에 올랐다.

KBL은 “네시즌을 상대로 KBL 홈페이지에서 역대 프로농구 올스타 최고 MVP 투표표 한 결과 이승준이 총

368표 중 104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주성(동부)과 서장훈(전지랜드)이 각각 45표, 40표를 뒀을 것이다. 지난해 올스타 MVP를 차지한 이승준은 이번 올스타전 매직팀 베스트

5로 선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덩크슛 콘테스트(국내부문)에 나설 예정이다.

역대 올스타 최고 덩기에는 김효범(서울 SK)이 뽑혔고, 최고 3점슛터로는 문경은이 선정됐다.

문경은은 우지원과 함께 ‘올스타 슈팅스타’에 참가해 슈팅 실력을 겨룬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부음

▲구상용씨 별세 희주·희정·희경씨 부친상 천수호·존 맥도널

드씨 부부상=발인 30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백승주씨 별세 제민·지인씨 부친상 정형오씨 부부상=발인 30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 고삼순 님(여/97세) 子/子婦: 이기만/정순덕 기주/고추자 女/婿: 이금남 ·호실401호 · 발인:1월 29일 · 장지:장성삼계	故 오찬열 님(여/93세) 子/子婦: 서일길/오영자 女/婿: 서선래/채남/ 형민/박익석 ·호실101호 · 발인:1월 29일 · 장지:해남박원
--	--

孝 金 浩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謹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유재경·재갈·재운·현 씨 부친상 김중기씨 부부상 장지:영광 불갑면 연락처:250-4410 상 발인:1월29일(토) 09시00분 ▲박군수·인수·태수·정수 씨 모친상 최중철씨 부부상 발인:1월30일(일) 08시00분 장지: 원평 월아면 선영 연락처:250-4407 ▲박주환 씨 부친상 황찬우씨 부부상 발인:1월29 장지: 순창 구리면 선영 일(토) 09시00분 장지: 담양 오룡공원 연락처:250-4412 연락처:250-4409 ▲이윤현·상우 씨 부친상 김병선·전해연·최영열 씨 부부상 발인:1월29일(토) 10시00분 상 발인:1월29일(토) 09시00분 장지: 영암낙산(영락) 연락처:250-4413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